안녕하세요 장현정님,

예. 아주 많이 늦으셨습니다.

기다리느라 많은 고생을 했었습니다.

저는 한국시간으로 다음 주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점심3시 전에 시간이 있습니다.

부디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좋은 설날 보내세요.

감사합니다.

구형모 드림.